

GPA 올리기·확실한 과외 1~2개 집중하라

어느 세 3월이다 이제 몇 달 후면 길고 긴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는 이 여름방학이 상당히 중요하다. 때문에 지금부터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고 가장 알찬 플랜을 세워야 한다. 특히 인턴십이나 특정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은 방학이 입학에 찾으려면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왜 여름방학이 중요할까

방학은 누구의 간섭없이 자신이 원하는대로 보낼 수 있다. 이 많은 잠정하게 플랜을 세워 진행한다면 자신을 위한 소중한 투자의 시간이 되겠지만, 반대로 아무 준비없이 맞이한다면 허송세월을 보내기 십상이란 예기도 된다. 대학 입학사정에서 대학들은 지원자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살피게 된다.

자신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대학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확실한 흐름이 필요하다. 피상적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로 참여했다거나, 한 두 번 엑시트 선교를 다녀왔다는 것만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쉽지 않다.

조직적인 플랜 속에 알찬 준비와 노력, 성과가 분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름방학이 꼭 어떤 활동에만 집중적으로 편중되게 만드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이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다각적인 면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인대다. 각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나 목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정된 지면을 통해 설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임시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모아 플랜을 정리해 둔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1. 학업

예를 들어 학교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GPA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과 계획, 그리고 실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 학년에 배운 과목 중 부족한 부분들을 복습하면서 새 학년에 배울 과목들을 예습해 두는 것은 GPA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2. 과외활동

그동안 별다른 과외활동 기록이 없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11학년을 마친 경우라도 최소 한 두 개라도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찾아내 진행해야 한다.

당연히 10학년이나 9학년을 훨씬 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이 좋다.



그동안 별다른 과외활동 기록이 없다면 여름방학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11학년을 마친 경우라도 최소 한 두 개정도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찾아내 진행해야 한다.

SAT·ACT 실전 대비·에세이 주제 점검

바람직하다.

3. 학력평가시험 준비

여름방학 계획에서 SAT 또는 ACT와 같은 학력 평가시험 준비를 하는 것도 빼놓을 수는 없다. 여전히 이들 시험들은 대학에서 중요한 입학사정관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 삼매를 할으며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주요 계획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특히 11학년을 마친 경우 여름방학을 이용해 집중적인 공부를 한 다음 개학 후 바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입시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차지 없이 진행하도록 한다.

4. 대학 수준의 강의 수강

온라인이나 직접 수강 등을 통해 대학이나 자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듣는 것 역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등학교 보다 높은 수준의 강의를 수강한다면 학교에서 AP를 수강하는 것처럼 상당히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5. 캠퍼스 투어

누가 뭐래도 여름방학은 자신이 입학을 원하는 대학들을 여유있게 살펴볼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다. 특히 부모들도 이 기간에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여행을 겸해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은 동기부여와 대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6. 에세이 준비

11학년을 마친 학생들에게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방학을 이용해 대학들이 요구하는 에세이 주제를 살펴보고, 가장 기운이 되는 에세이를 준비해 간다면, 남들보다 알찬 내용을 만들 수 있고, 지원서 작성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나 김
사파 대학
인턴십 코디네이터
855-486-2783
www.TheAdmissionMentor.com